

만남

2013 5
통권 172호



《 성모 성월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 주임신부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성모성월을 맞이하며-----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4
소공동체 모임 자료	과부의 관청을 들어주는 재판관 비유-----	5
글모음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아름다운 모습 -----	8 9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26~28-----	10
공동체 소식	-----	18
활동모임시간 및 연락처	-----	21
이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기도 지향》

❖ 일반 지향 - 정치인과 법조인

정의를 구현하여야 할 정치인과 법조인들이 언제나 옳은 양심으로 행동하도록 기도합니다.

❖ 선교 지향 - 신학교

신학교, 특히 선교지의 신학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복음 선포에 온전히 헌신하는 목자들을 양성하도록 기도합니다.

성모성월을 맞이하며....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최종태 요한마리아비안네 주임신부

자신의 지위를 한없이 낮추신 주님,
 저희 모두에게 겸손한 덕행을 내려 주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덕행임을 모르는 자는 없습니다.
 저의 미약한 기도이지만, 기쁘게 들어주시면서
 늘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의지력을 주소서.
 그들이 매일 매일 겸손의 덕행을 쌓는 일에 놀라운 진전이 있도록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을 잠시라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소서
 겸손의 덕행에는 어떤 한계가 없음을 깨달아 꾸준히 노력하게 하소서

인간은 누구나 가정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을 통해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주님,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시고, 주님께서 가장(家長)이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그저 단순하게 함께 모여 사는 곳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과 함께 모여 사는 곳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사는 곳으로 여기게 하소서
 불의에 차고 분열이 심화되는 이 세상 안에
 이해와 화합의 본보기를 보여주게 하소서
 어떤 공동체이든 어두운 구석을 먼저 살피는 착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 재판관 비유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4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1,2절을 부릅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저희 마음에 오소서.
-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이끄심을 느끼게 해주소서.

◆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졸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사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여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 없을 때는

- 1) 내가 살아가면서 공정하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한 행동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 2) 나는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 간절히 청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 3) 나는 하느님을 알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그것에 대해 서로 얘기해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를 간절히 찾기를 바라는 한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지혜를 얻는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그를 강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함께 물속에 들어간 다음, 갑자기 젊은이의 머리를 붙잡아 물속에 밀어 넣었다. 젊은이는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려고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있는 힘껏 그의 머리를 붙잡아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치던 젊은이는 간신히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소크라테스가 물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을 때 자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자 젊은이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공기였어요!” 이 말에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자네가 지금처럼 공기를 원했던 것만큼 지혜를 원한다면 얻게 될 걸세!”

◆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합시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40번 “구하시오 받으리라” 를 부릅시다.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이병률-

허기를 달래기엔 편의점이 좋다
 시간이 주는, 묘한 느낌을 알기엔 쉬는 날이 좋다
 몰래, 사람들 사는 향내를 맡고 싶으면 시장이 좋다
 사랑하는 사람의 옆모습을 보기엔 극장이 좋다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기에는 파도가 좋다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생각 할 필요 없이 내가 태어난 곳이 좋다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를 받기엔 바람 부는 날이 좋다
 여행의 폭을 위해서라면
 한 장보다는 각각 다르게 그려진 두 장의 지도를 갖는 게 좋다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알기 위해선, 높은 곳일수록 좋다
 세상 그 어떤 시간보다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시간이 좋다
 희망이라는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근거릴수록 좋다
 고꾸라지는 기분을 이기고 싶을 때는 폭죽이 좋다
 사랑하기에는 조금 가난한 것이 낫고
 사랑하기에는 오늘이 다 가기 전이 좋다.

아름다운 모습

-이해인수녀님-

친구의 이야기를
아주 유심히 들어주며
까르르 웃는 이의 모습

동그랗게 둘러앉아
서로 더 먹으라고 권하면서
열심히 밥을 먹는 가족들의 모습

어떤 모임에서
필요한 것 챙겨놓고
슬그머니 사라지는 이의
겸허한 뒷모습

좋은 책을 읽다가
열심히 메모하고
밑줄을 그으며
뜻깊은 미소를 짓는 이의 모습

조용히 고개 숙여
손님이 벗어놓은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이의 모습

“저기요.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갑자기 부탁을 하였을 때도
귀찮아하지 않는 웃음으로
정성 다해 사진을 찍어주는 이의 모습

이웃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말없이 손잡고 눈물 글썽이며
기도부터 해주는 이의 모습

누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큰일 난 것처럼 한걸음에 달려와
자기 일처럼 내내 걱정하며
그의 곁을 지켜주는 이의 모습

교리26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자식간의 의무 (1)

○ 부모의 자식에 대한 의무

●양육의 의무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첫째가는 가장 우선되는 역할은 그 자녀의 양육, 즉 생명과 건강, 물질적 복지를 위한 준비일 것이다. 그것은 자녀의 출생 이전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태아의 육체적 발달은 어머니의 건전하고 신중한 생활 방법에 달려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므로 출산을 기다리는 어머니는 가능한 한 심한 육체적 노동, 갑작스런 충격, 불필요한 긴장과 불안, 음주, 흡연 등을 피해야 한다. 여기에는 물론 장래의 아버지의 도움도 필요하다. 즉 그것은 출산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와 배려로 이루어져야 하고 출산을 기다리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사랑과 보호, 관용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부모에 의해 ‘기다려지는 아이’로 태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미 모체에서부터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생을 기다리는 시간은 거룩하고 기쁨에 찬 시간이다. 부모는 하느님으로부터 그들에게 맡겨지는 새 생명을 가정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온화한 사랑의 자세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새 생명은 하느님의 축복 받은 선물이며, 부부 상호간의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모유 양육은 영양학적으로 뿐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중요하다. 모유 양육을 통해 아기는 어머니와 신체적 접촉을 이루고 어머니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인간의 사랑 능력은 배워서 발달되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사랑을 받음으로써 발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와의 개별 접촉을 통해 사랑을 체험하면서 성장해야 한다.

어린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육체적 부양을 부모는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부모들은 절약과 근검을 통해 자녀들에게 적당한 유산을 남겨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훌륭한 직업교육이나 삶의 단련을 통해 자녀들의 실존을 가능케 하는 것이 단순한 부의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임은 재언할 여지가 없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직업을 선택할 시기에 충실한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올바른 직업 선택을 통해 자녀들은 자신들의 확고한 위치를 발견하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들을 개발시키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자녀의 자유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직업 선택의 조언자로서 현세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영원한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훌륭한 직업 선택과 직업교육은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유산이 될 것이다.

●교육의 의무 :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은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교육적인 기능을 암시하고 있다. 사랑은 교육에 있어서 최상의 본질적인 힘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최고의 교육자가 되게 해 준다. 올바른 자녀 교육의 시작은 부부로 부터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우선 사랑에 충만한 부부 관계의 형성과 그 표출이 바른 자녀 교육을 시작하게 해 준다. 그래서 부부 관계의 사랑에 충실한 유지는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에 의한 선한 표양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녀의 개인적 사회적 전 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바 하느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신심에 가득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양친의 의무이다.” (교육, 3항)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 부모의 역할비중 중 많은 부분이 어머니에게 할애되어 있는데 그 어머니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역할은 존중되어야 하고 동시에 아버지의 자녀 교육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 또한 올바른 자녀의 성숙에 있어서 아주 유익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리스도적 사랑과 자녀의 인격적 존엄성에 대한 깊은 경외에서 시작하는 교육은 자녀의 윤리적 정신적 발전, 종교적인 발전을 지향한다. 그래서 자녀는 그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 및 사회 안에서의 책임을 지는 존재를 지향하여 양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조화롭고 행복한 삶에 필수적인 사회적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덕에 대한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부모의 꾸준한 지속성과 뚜렷한 목적의식 속에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윤리적 위험에 직면해 올바른 대처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면 그 자녀를 보호해야 하며 가정 밖의 활동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감독해야 한다. 한편 자녀의 인격적 성숙도가 높아감에 따라 스스로 책임성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회생활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기술을 잘 습득하여 인간사회의 각 영역에 행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마음을 열어 공공의 복지를 추진하는 데 즐겨 노력하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교육, 1항) 그래서 부모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가치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그것은 장차 자녀가 속하게 될 공동체내에서의 원만한 관계 유지와 노동 속에서의 자아 발견과 형성, 장차 책임져야 할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부양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교육, 특히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은 자녀의 올바른 양심의 형성과 자신의 내적 자유에 의한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 교육의 이러한 측면은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궁극적 가치인 하느님 나라에의 선취와 그것의 현세에서의 구현, 사회 전체의 복지 구현에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녀들에 대한 종교적 교육의 중요성 또한 간과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은 그 감수성이 뛰어나 이 때에 받게 되는 종교교육은 어린이들의 전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동인(動因)이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가정에서 부부는 그들의 충실한 신앙생활과 그리스도적 사랑의 표현으로 자녀들을 그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차츰 신앙에로 나아가도록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가정은 모든 교육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본당 차원의 교육 조직에 자녀들의 종교교육을 위임해 그들의 전 인격에서 그리스도적인 사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지적 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학습의 경험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큰 중요성을 가지는 또 다른 측면이다. 부모는 학교교육과 양성을 통해 자녀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키울 의무가 있는 것이다. 동시에 부모는 자녀들의 교육 형태와 내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올바른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교리27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자식간의 의무 (2)

○ 자식의 부모에 대한 의무

성 토마스에 따르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자녀의 의무는 부모가 하느님의 뒤를 이어 “생명과 성장과 교육의 제2의 근원”이라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많은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결국 자녀는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좋은 교육을 위한 부모의 책임은 자녀 편에서의 복종을 요구한다. 이 모든 의무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정서적 생활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들이다. 만일 부모가 부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하지 않거나 또는 사랑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생긴다. 그것은 자녀의 의무들을 변경시킬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의무는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는다.

● 존경과 공경 : 부모에 대한 존경은 하느님에 대한 종교적 경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존경은 바로 하느님의 명령이자 동시에 성서의 요청이기도 하다. 즉 십계명의 제4계명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할 자녀의 의무를 직접 강조하고 있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탈출 20,12 ; 신명 5,16). 그리스도께서도 이 계명을 두 번 인용하며 확인하신다(마태 15,4 ; 19,19). 부모 공경은 생명의 신비로부터 흘러나오며, 여기에서 부모는 하느님의 협력자들인 것이다. 그것은 부모가 하느님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 지고 있는 큰 책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자연히 만일 부모가 자신들의 생활과 권위를 하느님 공경과 찬양에 토대를 두지 않거나 그럴 능력이 없음이 입증된다면, 그리고 더욱이 만일 그들이 무책임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들은 자식의 마음에서 참된 존경심이 성장하는 것을 크게 방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녀는 부모와 동일한 위치에 있지가 않음을 인정하고 부모의 부모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보잘 것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자녀의 요구대로 따라 줄 수 없는 부모의 처지를 무능과 경멸의 기회로 공격하거나, 심지어 부모에게 그 이유야 어 떠하든 폭력을 행사하는 패륜은 절대 삼가야 한다. 부모에 대한 존경은 종교적 차원 이외에도 자연법적인 차원도 있다. 부모는 자녀들의 실존과 생명의 원천이므로 자녀는 세상에 태어난 것이 부모의 덕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순종 : 순종은 명령의 단순한 이행 뿐 아니라 동시에 자신을 종속시킴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순종은 창조의 위계 질서에 대한 수락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권리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인간이 서로 의존하고 서로 종속되도록 인간 실존을 구성하고 질서 지으셨기 때문이다. 자녀의 전인적인 발전은 부모와 교육자들의 도움과 지도를 필요로 하며, 따라서 그들에 대한 순종을 요구한다(교육적 순종). 자녀들이 부모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한, 그리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한 능력과 역량을 아직 지니지 못하는 한, 자녀들은 자신들의 교육과 훈련에 관계되는 선하고 합법적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자식에게는 집안의 질서 또한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며(기능적 순종), 이는 자식이 성년이 된다 해도 집안에 머무르는 한에는 마찬가지이다. 모든 자녀들은 집안의 질서에 필요한 일들에 순종해야 한다.

부모에 대한 순종도 성서의 요청이다.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잠언 6,20).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에페 6,1). “자녀된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골로 3,20). 부모에 대한 순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명령자에 대한 신뢰와 순종에도 한계가 있고 여기서 비판이 발생한다. 순종의 한계점은 내용적으로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발생한다.

자녀가 부모의 정당한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전제적으로 강압적인 명령을 행사하기보다는 순종의 가치와 명령의 이유를 개개의 실례를 통해 설득시키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녀들은 비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서는 안된다. 신적 또는 교회적 실정법 - 예컨대 주일 미사 참여의 의무 - 과 관련되지 않고 자식이 극심한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순종하도록 허용되어서도 안된다. 또한 자녀들은 지나친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으며, 적어도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정당한 관심사에 반하면서까지 순종할 의무는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녀들은 성소나 결혼 배우자의 선택과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 부모의 의사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적어도 부모와 상의하고 부모의 충고는 들어야 한다.

●사랑과 감사 : 자녀가 부모에게 지고 있는 채무는 엄청나다. 생명을 선사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드려야 할 이유는 충분히 된다. 출생의 순간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바친 희생, 사랑, 봉사는 시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사랑은 감사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 특히 생명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므로 여기에 대한 감사의 의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변하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 존경, 순종, 사랑과 감사는 ‘효도’로 집약된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진 채무를 되돌려 갚는다는 반대급부에 바탕을 두는 것보다, 순수하고 깨끗하며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하지 않는 자발적인 것이 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더구나 부모 공경이나 효도가 이해 타산적이며 계산적인 것이 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살벌해질 것이다. 이러한 이해 타산적이고 계산된 효도는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교리28

전례 상식 (2)

미사 때 읽는 성서 구절을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예배 행위가 하느님 말씀의 선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례 안에 말씀의 전례가 들어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전례는 바로 성찬례(미사)입니다. 이 성찬례는 다시 두 개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는데,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입니다. 말씀의 전례의 중요성이 돋보이도록 교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 아래 이를 재구성했습니다.

첫째, 적어도 복음 대부분을 신자들이 주일 미사 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성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가’ 해에는 마태오 복음을, ‘나’ 해에는 마르코 복음을, ‘다’ 해에는 루카 복음을 읽도록 구성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연중 2주와 ‘나’ 해 17-21주에 읽도록 하여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라면 3년 안에 복음의 주요 부분을 다 경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주일 미사에서 제1독서는 구약에서, 제2독서는 신약에서 가지고 오되, 구약성서는 그날 복음의 주제와 일치하는 것을 고름으로써 신자들이 그날의 복음 내용을 더 잘 이해하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독서는 복음과 상관없이 바울로의 편지들과 야고보서를 연속적으로 읽도록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제2독서는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평일 미사를 위해서는 1년 안에 복음서를 순서대로 읽도록 배열하는 한편, 제1독서는 구약과 신약의 주요 부분을 추려내어 2년 안에 다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서 독서를 배치한 까닭은 주일 미사에 충실한 이는 3년 안에, 평일 미사에도 참여하는 이는 1년 안에 성서의 주요부분을 대함으로써 신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개인적으로도 끊임없이 성서를 가까이해야 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비안네 신부

❖ 5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3일	필 립 보 (St. Pillip)	김 경 열 왕 신 일 (James) 이 수 웅	16일	요 한 (St. John)	홍 경 영 한 재 승
			24일	수 잔 나 (St. Susanna)	노 정 자
14일	크리스티안 (St. Christian)	김 호 연 이 성 원	30일	요 안 나 (St. Joana)	윤 석 순
15일	소 피 아 (St. Sophia)	이 신 자 홍 현 정 이 공 종	30일	펠 릭 스 (St. Felx I)	박 경 원

❖ 지방 공동체 영명축일

3일	야 곱 (St. Jacob)	정광하(한)	6일	베네딕타 (St. Benedicta)	민병진(한)
----	--------------------	--------	----	-------------------------	--------

❖ 세상을 떠난 교우를 생각합니다. ❖

05월 26일	✠ 김 동창	요 셉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	-------------------------------------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3월 30일	3월 31일	4월 7일	4월 14일	4월 21일
계(€)	115	383	163,84	207,07	180,59

❖ 자진헌납금 ❖

4월 자진헌납금 납부자 명단

배성호, 김형웅, 허길조, 김치수, 허두욱, 곽케빈

2월 24일 납부자 : 강신행, 김대현 (3월 만남지에 미반영 분)

❖ 미사 전례 ❖

5월	독서	제병봉헌	복사	카페봉사
5일	노정자 수산나 손수희 모니카	김진호 프란치스코 최영숙 데레사	남궁춘 발드로메오 이정수 토마스	1구역
12일	백정선 토마스 이영자 헬레나	손수희 모니카 노정자 수산나	손대조 요셉 정명옥 살로메	2구역
19일	김유석 그레고리오 김애란 세실리아	김부남 베드로 박우연 루치아	허길조 안드레아스 이현목 요셉	청년반
26일	남궁춘배 발드로메오 김매자 베로니카	손대조 요셉 강순행 말가리다	김유석 그레고리오 최장용 레오	3구역

❖ 5월 성가번호

5월	입당	봉헌	마침
5일	135	513	244
12일	141	211	245
19일	144	217	246
26일	81	209	237

❖ 우리가 해야 할 일들

1. 성모성월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또한 우리 본당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하느님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친교를 청합니다.
2. 성모의 밤 행사가 5월 8일(수) 19:00에 만남성당 밑 강당에서 있습니다.
미사는 오전에(10:00) 그대로 봉헌되어집니다.
3. 5월 19일은 본당의 날 행사입니다. 함부르크 공동체는 08:30에 출발하도록 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공지사항 시간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4. 본당 주소록이 5월 중에 배부 됩니다.
5. 본당 신부님 휴가가 5월 21일(화)부터 6월 4일(화)까지입니다.
기도 중에 기억 부탁드립니다.

❖ Osnabrück 소식

1. 4월 정기미사는 지난13일(토)에 부활 제3주일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2. 월례 기도모임은 4월26일(금) 17:00에 임왕규(바오로)형제님 댁에서 진행됩니다.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정 명 옥 살 로 메	040/ 644 8623 0170 400 4754
구 역 장 모 임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구 역 분과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3742 0006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 사	0176 7636 2699
기 도 회		매월 둘째 목요일 16시 30분	만남성당	회 장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최 영 숙 데 레 사	040/ 3742 0006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셋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강 순 행 말가리다	040/ 297 543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732 1104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19시 00분	만남성당	단 장	강 인 경 카타리나	0176 6424 3886
구 역		1구역	구역장	최 화 영 시 몬		040/ 890 3264
			총 무	남궁춘배 발토로메오		040/ 850 9768
		2구역	구역장	공 석		
			총 무	허 채 열 크리스티안		040/ 570 9734
		3구역	구역장	공 석		
			총 무	강 순 행 마르가리타		040/ 297 543
		4구역	구역장	백 정 선 토 마 스		040/ 250 2589
			총 무	김 애 란 체칠리아		040/ 206 785

❖ 2013년 05 ❖

날 짜	전례	행사
1 수		
2 목	성 아타나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3 금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	
4 토		지방 공동체 미사 17시 Bremen
5 일	부활 제6주일 / 생명 주일	사목 협의회 미사 후 만남성당
6 월		
7 화		
8 수		
9 목		기도회 16시 30분 만남성당
10 금		
11 토		지방 공동체 미사 17시 Osnabrück
12 일	주님 승헌 대축일 / 홍보주일	
13 월		
14 화	성 마티아 사도 축일	
15 수		
16 목		레지오 월례회 평일미사후 만남성당
17 금		
18 토		지방 공동체 미사 15시 30분 Hannover
19 일	성령 강림 대축일	본당의 날
20 월		
21 화		
22 수		
23 목		연령회 17시 만남성당
24 금		
25 토		
26 일	삼위일체 대축일 / 청소년 주일	
27 월		
28 화		
29 수		
30 목		
31 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비 고		

본당신부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
사목회장 정 명 옥 살로메
주 소 구주소) Danzigerstrasse 62, 20099 Hamburg
 새주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040 24 34 92
 Fax.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mannam.cathms.kr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BLZ : 200 505 50, Konto-Nr. : 1230 126 136

발 행 인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	viannae@hanmail.net H.P : 0176 8464 7981
편 집 인	정 명 옥 안나살로메	annamo42@yahoo.de H.P : 0170 400 4754
	최 영 자 파울라	dada1311@nate.com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신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소공동체 17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회장 : 서선영(아우구스티노), Tel : 0421 255162

Osnabrück

시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장 : 최한우(바오로), Tel : 0541 37027

H.P : 0174 2964 504

Hannover

시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